

해커 잡는 해커 '화이트해커'

(주)스틸리언 대표 박찬암

‘ATM 해킹... 카드 복제해 현금 빼갔다’ ‘생활 속 사물 인터넷 새로운 해킹 대상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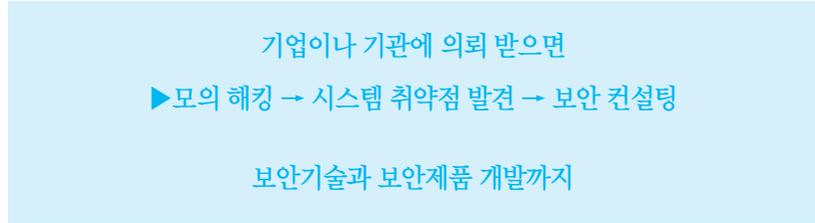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이버 공격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의 피해는 금전적 손실, 개인정보 유출, 국가 안보 위협 등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를 낳지요.

해커(Hacker)는 본래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전문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해 다른 이의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파일을 망가뜨리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해커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해커와 맞서 해킹을 막는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보안 전문가, 화이트해커입니다.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화이트해커. 화이트해커는 어떤 일을 하는지, 화이트해커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아보시다.

▼ 화이트해커가 하는 일은?

모의 해킹 통해 보안 컨설팅, 보안기술과 제품 개발도



정보 보안을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화이트해커에게 의뢰하는 내용은 “우리 회사나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뢰를 받으면 화이트해커는 해당 회사나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을 모의로 해킹합니다. 모의 해킹 작업을 통해 시스템 보안의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이를 토대로 어떤 방법으로 중요한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지 보안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화이트해커는 각종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보안기술을 연구하는 일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이트해커는 보안제품을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스마트폰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거대한 기업이나 기관뿐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도 악의적인 해킹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와이파이, 사물인터넷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화이트해커의 일입니다. 화이트해커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 그 밖에 군대, 병원, 연구소 등 모든 분야에서 IT(정보기술)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이트해커가 되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해커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화이트해커라는 꿈을 자신이 관심 있는 또 다른 분야와 접목시켜보는 것이 좋겠죠?

▼ **화이트해커에게 필요한 자질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 끈기 있는 자세 + 책임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는 기본!

수없이 발생하는 오류

▶오류의 원인을 끝까지 탐색하는 끈기 필수!

▶체력관리도 중요!

좋은 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윤리의식 가져야!

화이트해커는 새로운 컴퓨터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해커들이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의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공격해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화이트해커에게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새로운 컴퓨터 기술에 대한 호기심 등이 요구됩니다.

화이트해커는 해커가 어떻게 시스템에 침투했는지 분석하거나, 새로운 방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를 만납니다. 이때 오류의 원인을 끝까지 탐색하는 끈기는 필수지요. 오류를 분석하고, 기존의 해킹 기술을 연구하고, 새로운 보안 기술까지 개발하다보면 밤을 지새우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체력관리도 중요합니다.

화이트해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해커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맞서 사

이버 공간의 보안을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모의 해킹 작업으로 의뢰인들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화이트해커는 뛰어난 해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목적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윤리의식을 가져야합니다.

▼ **화이트해커가 되려면? 스스로 화이트해커가 되기 위한 길 찾아나가는 적극적인 자세 가져야**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나 취득해야하는 자격증 없어

스스로 화이트해커가 되기 위한 길 찾아나가는 적극적인 자세 필요

▶해킹 대회 참가, 보안 프로그램 개발 경험 등 유리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는 기본!

화이트해커가 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나 취득해야하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이트해커가 되고 싶은 학생이라면 스스로 화이트해커가 되기 위한 길을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국내외 해킹 대회에 참가하거나, 자신만의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이나 정보보안학 등을 전공하면 더욱 유리하지요.

박찬암 화이트해커는 화이트해커가 되기 위해 “책이 너털너털해져서 테이프로 붙여가며 공부했다”며 열정과 노력을 강조합니다. 박찬암 화이트해커의 말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프로그램의 허점을 단번에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 화이트해커,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화이트해커는 사후 방어만 한다? NO!

기존 해킹 기술 데이터 수집 및 연구
새로운 보안기술 개발하여 사전 방어 시스템 구축

▶ 새로운 것 배우고 익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 체력관리도 필수!

화이트해커는 해킹이 일어난 후에 시스템 보안 방식을 개편하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발생한 해킹 사건에서 사용된 해킹 기술을 연구하여 데이터를 추적하지요. 이렇게 추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보안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화이트해커의 역할입니다. 사후 방어뿐 아니라 사전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화이트해커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지요.

이메일 해킹 등의 개인정보 유출부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테러까지... 잇단 해킹 사고로 인해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나 국가안보 대응역량 강화 등의 사이버 보안 구축을 위해서는 좋은 방패처럼 좋은 창도 필요하지요. 총칼 없는 사이버전쟁에서 좋은 방패이자 좋은 창이 되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존재, 화이트해커. 화이트해커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하여 멋진 화이트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